

동신대 군사학과, 재학생 100% 장교시험 합격 '주목'

2014년 출범 후 전원 장교임관...올 신입생 역대 최고 성적 학생·교수·졸업생 소통 활발...첫 월급 장학금 기부 릴레이도

동신대 군사학과가 올해 신입생 전원이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서 '재학생 100% 장교시험 합격'이라는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동신대학교 군사학과에 따르면 2~4학년 재학생이 지난해까지 전원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올해 1학년

신입생 모두 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했다. 이들은 4년간의 대학 등록금과 추가 가산금을 지원받고 졸업과 동시에 7급 공무원 수준의 소위로 임관한다.

2014년 출범한 동신대 군사학과는 2018년 28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올 2월까지 총 1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

며 졸업생 전원이 재학 중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장교 선발시험에 100% 합격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1학년(11기)은 육군 학군(R-OTC)장교에 전원이 합격하고, 학군 군가산복무자, 육군 학사/학사 군가산복무자, 공군 학사예비, 해군/해병대 군가산복무자 등 전공 장교과정에 중복으로 합격하는 등 1인 평균 33개의 장교과정에 합격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비결은 교수들의 헌신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동신대 군사학과는 입학 전부터 인성 함양, 체력 단련을 시작하고, 입학 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규칙적인 훈련과 학습을 받는다. 성격검사,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인성검사, 진로·적성검사를 통해 개인별 능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지도교수와 전문상담사를 통한 학생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내용과 학업성취도 등의 결과를 교원종합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학생과 교수, 신입생과 재학생,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가르치고 유익한 것들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점도 장교시험 합격률 100%의 비결이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장교들의 선행도 주목받고 있다. 졸업생 선배들이 소위 임관 후 받은 월급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릴레이 장학금 기부는 동신대 군사학과만의 착한 전통이다. 군사학과 3기 졸업생 김찬미씨부터

시작된 첫 월급 릴레이 기부는 2월 졸업을 앞둔 7기 졸업생 이정인(4학년·22) 학생까지 이어지고 있다. 류태웅 동신대 군사학과장은 "엘리트 장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교수진 확보, 최적의 시설지원과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장교 시험 100% 합격이라는 전통을 이어가 전국 최고의 장교 육성기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이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남구 소재 어반브룩 갤러리홀에서 '2024 우리학교 홍보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정선 시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홍보단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우리학교 홍보는 우리가 직접 한다"

市교육청, 소속 학교 소식 등 SNS 게재 '홍보단' 성과공유회

광주시교육청이 '우리학교 홍보는 우리가 직접 한다'는 취지로 구성된 초·중·고등학생 홍보단의 올 한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남구 소재 어반브룩 갤러리홀에서 우리학교 홍보단 학생 및 지도교사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우리학교 홍보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홍보단원들은 지난 9월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이후 소속 학교 소식을 SNS에 게재하고 광주교육 정책 등을 홍보하는 활동을 해왔다. 성과공유회는 ▲차선우 광주교육 홍보대사 축하 영상 상영 ▲우리학교 홍보단 활동 성과 영상 시청 ▲우수 활동 학생 교육감 표창장 수여 ▲홍보단 활동 성과 공유 ▲꿈이 담긴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김세령(광주교대부설초·6학년) 학생은 "학교를 대표해 홍보단으로 활동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다"며 "학교의 특별한 장소와 행사를 알리며 자부심을 느꼈고, 다른 학교들의 다채로운 소식을 접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정은 양지초등학교 지도교사는 "학교 홍보영상을 처음 제작할 때 낯설어하던 학생들이 점점 자신의 아이디

어를 뚜렷하게 표현하고,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학교 홍보단'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해 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1년간 학교 현장에서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해 광주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린 '우리학교 홍보단' 학생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며 광주교육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자"고 전했다. /김다이기자

도교육청 '지9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 안착

시행 2년차 학교·기관 참여율 74% 성과

전남도교육청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지9하는 학교'가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9하는 학교' 시행 2년차를 맞은 올해 관내 학교·기관이 74% 참여, 지구 생태계와 기후회복 실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9하는 학교'는 ▲다회용 컵 사용 ▲빈교실 불 끄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안 쓰는 물건 나누기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9가지 환경보호 행동을 제안한다. 각 학교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탄소저감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운영 첫 해에는 참여율이 30%에 그쳤지만,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공유로 올해는 목표치였던

70%를 넘어 7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통해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비닐 사용 중단 캠페인을 펼친 중동초, 울바루 분리배출을 실천한 여수북초와 진도초, 마을 환경보전 활동을 운영한 복일초 등이 '지9하는 학교'의 상반기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다이기자



전남 10개 시군 '과학기술특임대사' 임명

GIST, 전임교원 15명 선임...맞춤형 자문 등 상생 도모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최근 행정동 총장실에서 전남권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특임대사 임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임명식에는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남권 지자체 과학기술특임대사로 GIST 교원 15명이 선임됐다.

GIST는 설립 목적인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중추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남권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고흥군, 영암군, 장흥군, 해남군, 담양군, 화순군, 완도군 등 전남도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고려해 15명의 전임교원을 과학기술특임대사로 선임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순천시(문화·관광(AI융합 콘텐츠)) 고광희 기계로봇공학부 교수 ▲광양시(이차전지·수소) 김형진 에

너지융합대학원·이승현 기계로봇공학부·임광섭 신소재공학부 교수 ▲장성군(첨단의료·건강식품) 양성·허필원 기계로봇공학부·김재관 의생명공학과 교수 ▲고흥군(우주·항공·드론) 최성임 기계로봇공학부 교수 ▲영암군(해양에너지·수소·항공) 김희주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장흥군(바이오·식품) 송미령 생명과학부·이현주 AI대학원 교수 ▲해남군(농수축산업) 손진희 AI대학원 교수 ▲담양군(농업 고부가가치화) 김경중 융합기술학제학부 교수 ▲화순군(바이오메디컬(백신)) 전창덕 생명과학부 교수 ▲완도군(미래 식량·에너지(해조류)) 진미선 생명과학부 교수가 10개 시·군의 과학기술 특임대사로 임명됐다.

임기철 GIST 총장은 "GIST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 및 발전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과학기술특임대사를 매개로 해 'GIST-지자체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며 "향후 전남권 12개 지자체와 추가로 MOU를 추진해 연구·학술 및 교육·기술 협력력을 통해 GIST의 역량을 공유하고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이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

차만손이 왜 필요할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호 실천 시 86%

차만손 어떻게 실천해요?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받는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차만손 등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